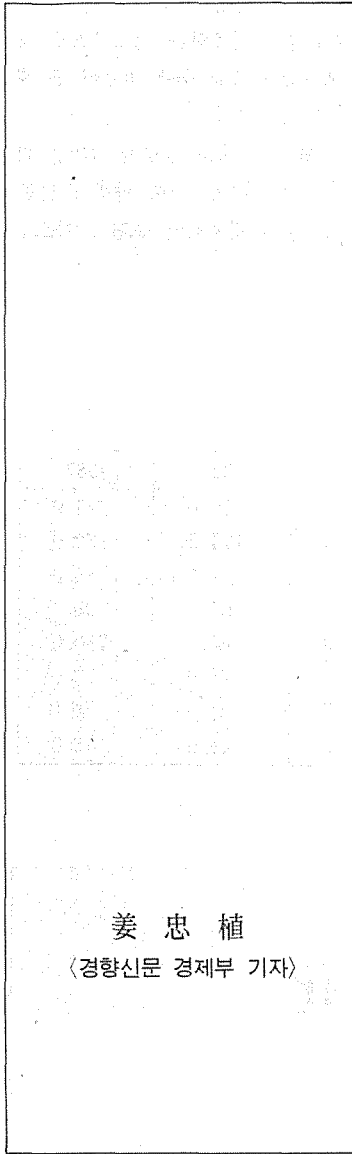


석유문제 취재의 유익한 동반자



姜 忠 植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석유 협회보」를 처음 본 것은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다. 그때는 바로 건설부를 출입하다 출입처가 동자부로 바뀐 직후였다.

신문사로서의 출입처조정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개인의 전문지식이 고려되는것은 아니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에너지문제, 특히 石油관련분야에 대해 일반인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한채 동자부에 나오게 됐다.

새로 출입처가 바뀌면 먼저 조건·석간의 신문스크랩을 훑어보고 관련자료와 잡지등을 닦치는대로 읽어 대강의 흐름을 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나온날부터 당장이라도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처가 바뀌게 되면 늘 한두달 이상 불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게 된다.

「석유협회보」를 처음 만난 것

은 바로 이런 와중에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겐 꽤 인상적이었고, 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 이유는 「석유협회보」의 내용이 당시의 石油문제현안을 시의적절하게 특집으로 다뤘고, 다른 내용들도 알차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석유협회보」 2월호엔 특집기사로 「87년도 석유정책방향」, 「석유제품수급계획」, 「가스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 등 3개 기사가 실려 큰 수고없이 국내석유문제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석유시론으로 「OPEC의 고정유가제실시와 국제석유시장전망」이란 기사도 실려 86년여름 배럴당 8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原油價가 왜 반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줬다. 그런면에서 「석유협회보」는 나의 「석유선생님」이었다.

「석유협회보」는 첫만남부터

66

또 전반적인 社會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業界主張 및 政府對策을 비판하는 내용도 이제는 실을 때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石油관련 일색으로 지나치게 딱딱한 내용만이 아니도록 재미있는 읽을거리도 실어보자.

99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익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협회보의 주축이 되는 기사인 석유시론과 특집기사 외에 해외석유시장동향과 각종 석유관련 통계 및 업계소식등이 담겨있어 일반 기사나 해설 기사를 쓸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석유협회보」가 창간된 것은 81년 3월로 만7년이 됐다. 사실 협회보가 창간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석유사정은 그때의 정치·경제의 상황만큼이나 압담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2차석유파동의 뒤끝이라 원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나마 물량확보마저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가운데 안정적인 石油 확보를 위해 업계·정부가 한마음으로 갖가지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일 때 였다.

「석유협회보」의 탄생은 넓게 보면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뤄진 셈이다.

다행히도 7년이 지난 지금 정치는 민주화의 길목에, 경제는 선진권의 문턱에 들어섰고 原油사정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됐다. 특히 지난 해는 단독으로 대륙붕개발에 나서 천연가스를 발견했고 또 마리브등 해외유전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석유업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정부와 업계 및 석유전문가들의 노력의 결실이지만, 그동안 정책소개와 업계의견의 수렴 및 정보교류, 홍보활동등을 꾸준히 해온 「석유협회보」가 작지만 보람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협회보」를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은 얼마 안되는 예산에 적은 인원으로 알찬 잡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잡지를 만드는 일 만큼 성가시고 어려운 것도 그리 많지는 않다. 우선 기획이 좋아야 하고, 또 필진과 글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보기 좋게 잘 꾸며야 한다. 그런면에

서 「석유협회보」는 시의적절한 기획과 적절한 필진 선정, 보기 좋은 편집등 3박자를 갖추고 있다.

다만, 석유협회기관지란 성격 때문에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석유관련 일색이어서 다소 딱딱하고 지리한 감을 준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인 것 같다. 협회보의 발행목적은 해치지않는 선에서 레저·스포츠·연예관련기사도 째짤이 실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회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업계주장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이제는 회보에 실을 때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협회관계자들의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며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기도 한 것이다.

「석유협회보」 창간 7돌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